

낙인과 친구 관계: 제주 지역 비행 문화의 한 특성

강 세 현

요 약

이 글은 낙인 과정에서 나타나는 친구 관계의 성격 변화를 분석함으로써 제주 지역 비행 문화의 한 특성을 탐색해 보고 있다.

이 글의 이론적 가정은, 청소년들에 대한 사회 통제 과정에서 비공식적 비난이나 공식적 처벌은 비행 문화를 부추기는 낙인 효과를 지닐 수 있으며, 또한 비행 문화의 특성은 지역 사회의 특성에 따라 차이를 보일 수 있다는 것이다.

이번 조사의 연구 방법은 질문지 조사와 심층 면접 및 질적 자료 분석인데, 질문지 조사는 제주 지역 청소년 550명을 대상으로 행해졌다. 이 밖에 제주 지역 청소년 범죄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공식 범죄 통계 자료를 이용했다.

발견된 사실을 간추리면 다음과 같다.

제주 지역은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우리 나라 중·소도시들 가운데 비교적 범죄 발생이 높은 곳에 속하며, 범죄 유형에 있어서는 폭력 행위와 절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제주 지역 비행 청소년들이 형성하는 친구 관계의 성격은 상황과 편의에 따라 집단 구성원이 바뀌는 이합집산적인 유사 집단의 특성에 가까운 듯하다.

I. 머리말

우리 나라에서 청소년 비행에 관한 조사 연구는 대개 전국을 단위로 하거나 대도시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방의 특성을 고려하는 지역 단위 연구는 매우 드문 듯하다.

그런데 범죄와 비행은 사람들이 일상적 삶을 겪어가는 현장인 지역 사회라는 공간 속에서 발생하는 문제이다. 또한 최근에 와서 시행되고 있는 보호 관찰 제도에서 엿볼 수 있듯이 범죄의 예방과 대책 활동에 지역 주민의 참여가 확대되고 있고, 이에 따라 범죄 문제 해결에 지역 사회 구성원들의 창의력이 요청되고 있는 추세를 감안한다면, 지역을 단위로 하여 발생하는 범죄 및 비행의 특성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일은 필요하다.¹⁾

이러한 의미에서 이 글은 제주 지역 청소년 비행의 특성을 낙인과 친구 관계에 초점을 맞추어 살펴보고자 한다. 낙인과 친구 관계에 초점을 맞추는 까닭은, 문제가 또는 범죄자와 같은 낙인은 청소년들의 친구 관계에 변화를 가져올 뿐만 아니라 비행 문화 형성을 부추기는 중요한 요인이고, 비행 문화의 일부를 구성하는 친구 관계의 성격은 지역 사회의 특성을 반영할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II. 이론적 논의

낙인 이론을 체계화시킨 베커(Becker)는 일탈 경력 형성에 대한 설명에서 일탈 집단과 일탈 문화를 중요한 요인으로 거론하고 있다.

“공통의 운명이라는 느낌과 동일한 문제에 직면했다는 것으로부터 일탈

1) 지역 단위 범죄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개괄적으로 소개하고 있는 글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Herbert(1989); Reiss, Jr.(1986).

문화는 발달하게 된다. 세상이 어떠한고 그것을 어떻게 다룰 것인가에 대한 시각과 이해들, 그리고 그 시각에 기초한 일상적 활동들. 그러한 집단안의 소속은 일탈적 정체감을 강화해 준다.

조직된 일탈 집단으로의 이동은 일탈자의 경력에 몇가지 중요한 결과를 가져온다. 첫째, 개별적 일탈자에 비해 일탈 집단은 더욱더 그들의 위치를 합리화하도록 해주는 경향이 있다 …… 일탈 집단으로 이동할 때 발생하는 두번째의 점은 일탈자가 별다른 고민없이 그의 일탈 활동을 하는 법을 배운다는 것이다 …… 한가지 더 다룰만한 사실이 있다. 일탈 집단의 규칙은 일반적으로 일상의 도덕 규칙, 제도, 그리고 전체의 일상 세계에 대한 부인을 포함하는 경향이 있다.” (Becker, 1973:38-39)

베커의 위와 같은 언급에서 보듯이, 낙인 이론은 낙인 그 자체가 비행 문화를 형성하는 데 중요하게 작용할 수 있다는 이론화의 가능성을 열어놓고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Braithwaite, 1989:26-27). 즉 사회 통제가 일탈자를 분리하고 거부하는 역할을 함으로써 범죄자로 낙인 찍힌 사람들은 그들과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들과 연대하려고 모색하게 된다는 것이다.

청소년의 경우, 버린 자식, 문제아, 범죄자와 같은 낙인은 청소년들을 비행 문화 속으로 몰아내는 중대한 삶의 체험이 될 수 있다. 청소년들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성인들의 사회 통제 과정에서, 가정, 학교, 사법 기관에서 행해지는 비공식적 비난 및 공식적 처벌은 청소년들에 대한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기대할 수 있는가 하면, 정반대로 그 정도가 지나쳐서 청소년들을 기존의 사회 관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낙인 현상을 자아낼 수도 있다. 이렇게 낙인 상황에 직면하게 된 청소년들은 자신들의 갈등 심리를 극복하고 새로운 환경에 적응해 가는 방편의 하나로 기존의 사회 관계를 조정하거나 새로운 친구 관계를 형성하고 나아가 비행 문화에 빠지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된다.

그런데 문제아 또는 범죄자로 낙인 찍힌 청소년들이 그 이후에 어

떠난 과정을 통해 어떠한 특성을 지닌 친구 관계 및 비행 문화를 형성하게 될 것인지에 대해서는 기존의 비행 문화 이론들의 도움을 얻어 다음의 세 갈래로 논의해 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1. 코헨의 비행 문화 이론

코헨이 중심 주제로 삼고 있는 비행 문화는 학교 생활에 적절히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 청소년들이 박탈된 자신들의 지위를 회복하고 새로운 적응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형성된 하나의 적응 양식을 의미한다(Cohen, 1955). 이렇게 형성된 비행 문화는 그 구성원들에게 정체성을 확인해 주는 기능을 하게 되는데, 내용적으로 보면 '비공리적이고 악의적이며 반항적인 특성'을 지니며, 조직의 측면에서는 집단화 정도가 높고 집단 구성원들간에 강한 응집력을 유지하는 경향이 있다.

코헨이 제시하는 형태의 조직적이고 반사회적 특성이 강한 비행 집단은 사회 구성원 사이의 경쟁이 치열함으로써 사회적으로 가치있는 목표 달성에 대한 좌절 역시 클 수밖에 없는 사회적 상황에서 나타날 가능성이 크며, 기존의 가치에 대한 반항의 단계로까지 발전한 범죄자를 설명하는 데 적합할 듯하다.

2. 마차의 비행 문화 이론

마차의 비행 문화에 대한 설명은 앞의 코헨의 입장과는 매우 상반되는 시각이다(Matza, 1964, 1969; Sykes & Matza, 1975). 마차가 보기에 비행 문화를 특징짓는 가치는 갱 집단에만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것도 아니고 기존 규범과 정반대되는 것도 아니라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에 입각하여, 마차는 비행 소년들은 일반적 가치와 범죄적 가치의 틈새에 존재하면서 각각의 규준에 대응하고 범죄에의 결정과 참여를 유보한 채 표류(drift)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오래 지속됨으로써 청소년들은 가정과 학교에서의 도덕

적 구속력으로부터 자유로운 해방의 시기를 맞이하면서 비행을 일으킬 기회를 갖게 되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다. 그런데 청소년들의 표류 상황이 곧바로 비행과 연결되는 충분 조건이 되는 것은 아니고, 실제 비행이 일어나려면 몇가지 단계와 계기가 필요하다고 한다. 즉 절망과 좌절감의 분위기에 휩싸인 청소년들이 청소년 문화 속에서 동료들과의 교섭 과정을 통해 범행을 정당화하는 기술을 터득하고 비행의 결정적 계기인 범행 의지를 굳힘으로써 비행이 발생한다는 설명이다.

마차의 시각은 비행 문화의 집단적 응집성과 기능을 부인하면서 문제 청소년들의 집단과의 관계는 어디까지나 청소년의 주도적 선택의 문제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는 듯하다. 마차가 제시하는 표류 상태의 비행 문화는 기존의 규범을 완전히 부인하지는 않는 범죄화 과정의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3. 야블론스키의 유사 집단(near group) 이론

유사 집단의 특성은 코헨과 마차가 제시하는 비행 문화의 중간 정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야블론스키가 설명하는 유사 집단은 집단 응집성과 집단화 경향이 매우 미약할지라도 그 집단 구성원의 정서적·감정적 욕구를 일정 정도 충족시켜 주고 적응을 도와주는 유사 공동체적 특성을 지닌 것으로 개념화되고 있다(Yablonski, 1959). 유사 집단 속에는 공식적인 지도자가 존재하는 것도 아니며 일정한 조직의 규범을 갖고 있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유사 집단의 구성원들은 항상 바뀌고 매우 유동적이어서 집단의 응집력은 그다지 높지 않다.

야블론스키의 유사 집단 이론은 문제 청소년들의 관계에 미치는 집단 영향력을 일정 정도 인정하되 그 영향력은 제한적이고 일시적인 성격의 것임을 제시해 주고 있다.

비행 문화에 대한 논의를 참조해 본다면, 문제아 또는 범죄자로

낙인 찍힌 청소년들이 구성하는 비행 문화, 작게는 친구 관계의 성격은 ① 집단화 정도와 결속력이 높은 비행 집단(코헨), ② 청소년들의 자유 의지가 보장될 정도의 표류 상태의 느슨한 친구 관계(마차), ③ 문제 청소년들의 적응을 도와줄 정도의 공동체적 감정은 존재하나 매우 유동적 성격의 유사 집단(야블론스키) 세 가지 가운데 어느 하나에 가까운 형태를 취할 것으로 가정할 수 있다. 그리고 비행 문화 이론으로부터 도출한 친구 관계의 성격 구분은 한 지역 사회의 비행 문화의 특성을 가늠해 보는 데 시사하는 바 클 것으로 생각한다.

Ⅲ. 연구 방법

이 조사 연구에서는 일차적으로 자기보고식 질문지 조사를 실시하고 그 자료를 통계적으로 분석하는 과정에서 보다 심층적인 분석을 필요로 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심층 면접 및 질적 자료 분석의 내용을 보충하고 있다. 이 밖에도 제주 지역 청소년 범죄의 양상을 알아보기 위해 공식 범죄 통계 자료를 이용하고 있다.

질문지 조사 대상 및 변수 측정 방식은 다음과 같다.

1. 조사 대상 및 기간

질문지 조사는 제주 지역의 중·고등학생과 이 연령에 해당하는 소년원생 및 보호 관찰 청소년을 대상으로 행해졌다(중학생 137명, 인문고교생 143명, 실업고교생 145명, 보호 관찰 소년 93명, 소년원생 32명, 총계 550명). 조사 기간은 1993년 12월 13일부터 1994년 2월 1일까지 이다.

2. 변수 측정

1) 계층·계급적 지위: 계층·계급적 지위는 보호자의 교육 수준, 자신이

생각하는 가정 생활 형편, 그리고 보호자의 직업에 대한 문항을 통해 측정했다. 분석 과정에서 교육 수준은 '중졸 이하', '고졸', '대졸 이상'으로, 가정 생활 형편은 '상층', '중층', '하층'으로 범주화했다. 계급 지위는 보호자의 직업과 고용 상태를 바탕으로 계급 범주를 구성한 후, 또다시 사회적 자원의 통계 수준을 고려하여 '중상 계급', '신중간·구중간 계급', '근로계급·도시하류계급·농어민층' 세 개의 범주로 묶어 분석에 이용했다.²⁾

2) 낙인 상황, 비공식, 준공식, 공식 낙인: 가정에서의 신체적·애정적 처벌, 학교에서의 각종 징계 조치와 교사들의 불인정, 사법 기관에서의 처벌은 청소년들의 정상적인 대인 관계에 중대한 변화를 불러일으키는 낙인이 진행될 수 있는 상황으로 간주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사에서는 가정, 학교, 사법 기관에서의 통제 및 처벌 경험에 관한 문항을 통해 낙인 상황을 측정하고 있다. 그리고 낙인의 영향을 단계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낙인 강도의 정도에 따라 비낙인, 비공식 낙인, 준공식 낙인, 공식 낙인으로 범주화하고 있다.

비낙인, 비공식 낙인, 준공식 낙인, 공식 낙인이라는 조작적 정의를 보다 알기 쉽게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다.

- ① 비낙인: 가정, 학교, 사법 기관에서 처벌받은 경험이 없는 경우
- ② 비공식 낙인: 가정에서만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 ③ 준공식 낙인:〈학교에서만 처벌받은 경우〉+〈가정과 학교에서 중첩적으로 처벌받은 경험이 있는 경우〉
- ④ 공식 낙인:〈사법 기관에서만 처벌받은 경우〉+〈가정·사법 기관에서 중첩적으로 처벌받은 경우〉+〈학교·사법 기관에서 중첩적으로 처벌받은 경우〉+〈가정·학교·사법 기관에서 중첩적으로 처벌받은 경우〉

2) 이와 같은 계급 분류 방식은 홍두승(1983, 1988), 홍두승·서관모(1985)의 글을 참조하여 구성한 것이다.

3) 친구 관계: 친구 관계 유형은 호록스(Horrocks, 1951:131-153)의 연배 집단 분류 방식을 참조하여 다음의 다섯 가지로 나누어 조사했다.³⁾

- ① 항상 혼자서 지낸다(외톨이).
- ② 한 명의 친구와만 붙어다닌다(단짝).
- ③ 두서 명의 친한 친구들과 어울리며 그 친구들과 항상 행동을 같이 한다(끼리끼리).
- ④ 4-5명의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그 중 특정 친구와 아주 가깝다(패).
- ⑤ 6명 이상의 친구들과 어울리는데 이 친구 집단에는 특정한 규칙이 있으며 일정한 지도자도 있다(패거리).

다음으로 집단 결속력은 친구 관계 유형 조사에서 나타난 '외톨이' 사례들을 제외시킨 후, 나머지 사례들의 친구 사이의 관계 정도를 묻는 문항을 통해 측정했다.

IV. 자료 분석 및 해석

1. 제주 지역 청소년 범죄 양상: 공식 통계의 분석

조사 자료의 분석에 앞서 공식 통계에 나타난 제주 지역 청소년 범죄의 양상을 다른 지역과 비교해 보면(표 1)과 같다.

〈표 1〉에 기초하여 전국 주요 지역별 범죄 인원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은 양상을 보이고 있다.

- 3,000명 이상인 지역: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 1,500명 이상인 지역: 울산, 청주, 제주

3) 여기서는 전병재(1991:41~42)에서 재인용.

〈표 1〉 전국 주요 지역별 청소년 범죄 인원 비교(1987, 1991)

지 역 명	범죄인원	지 수	지 역 명	범죄인원	지 수
서울(87)	30,781	100	춘천(87)	463	100
(91)	28,400	92	(91)	618	133
부산(87)	7,873	100	진주(87)	893	100
(91)	7,945	101	(91)	855	96
대구(87)	4,443	100	여수(87)	393	100
(91)	5,192	117	(91)	816	208
인천(87)	2,763	100	군산(87)	423	100
(91)	4,046	146	(91)	423	100
광주(87)	2,840	100	제주(87)	1,040	100
(90)	3,283	116	(91)	1,536	148
목포(87)	1,024	100	이리(87)	491	100
(91)	898	88	(91)	495	101
울산(87)	1,927	100	포항(87)	598	100
(91)	1,970	102	(91)	795	133
청주(87)	1,339	100	천안(87)	234	100
(91)	1,841	137	(91)	612	262

주) 광주 지역은 1991년 자료의 불비로 1990년 자료를 이용하였음.
 자료: 대검찰청(1987,1991).

- 1,000명 이하인 지역: 목포, 진주, 여수, 포항, 춘천, 천안, 이리, 군산

위에서 연간 범죄 인원 3,000명 이상으로 범죄 발생이 매우 높은 곳은 대도시 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다. 그러나 대도시 지역을 제외

한 중·소도시의 범죄 인원을 비교해 본다면, 제주 지역은 연간 범죄 인원이 1,500명을 웃도는 비교적 범죄 발생이 높은 고장임을 알 수 있다.

다음으로 1987년—1991년 5년간의 범죄 증가 지수를 기준으로 전국 주요 지역을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40% 이상 증가한 지역: 천안, 여수, 제주, 인천
- 30% 이상 증가한 지역: 청주, 포항, 춘천
- 10% 이상 증가한 지역: 대구, 광주
- 정체된 지역: 부산, 울산, 군산, 이리
- 감소한 지역: 서울, 목포, 진주

범죄 증가 비율면에 있어, 제주 지역은 1987년—1991년 사이에 청소년 범죄가 4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으로써 대도시를 포함한 전국 주요 지역들 가운데 범죄 증가 비율이 매우 높은 곳에 해당되고 있다.

한편 제주 지역 청소년 범죄 유형을 범죄 인원에 있어 가히 우리나라 청소년 범죄의 중심지라 할만한 서울 지역과 비교해 보면(표 2)와 같다.

〈표 2〉에서 서울과 제주를 막론하고 청소년 범죄의 주요 유형은 폭력 행위와 절도임을 확인할 수 있다. 제주 지역에서 폭력 행위와 절도는 1987년—1991년 사이에 양적 증가를 보이면서 '청소년 범죄'의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런데 제주 지역의 경우에 한 가지 특이한 사항은 도로교통법, 교통사고특례법 위반과 같은 교통 관련 범죄의 증가 정도가 서울에 비해 높을 뿐만 아니라 전체 범죄 유형 가운데 교통 관련 범죄의 점유 비율 역시 점차로 높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표 2〉 청소년 범죄 유형 비교(서울:제주, 1987, 1991)

범죄 인원(%)

구 분		서 울		제 주	
		1987년	1991년	1987년	1991년
계		30,781(100)	28,400(100)	1,040(100)	1,536(100)
재산범죄	절 도	8,332(27.1)	6,291(22.2)	256(24.6)	333(21.7)
	기타재산범죄	1,319 (4.3)	897 (3.2)	16 (1.5)	42 (2.7)
강력범죄	강 도	637 (2.1)	762 (2.7)	18 (1.7)	20 (1.3)
	강 간	599 (1.9)	323 (1.1)	28 (2.7)	13 (0.8)
	기타강력범죄	563 (1.8)	424 (1.5)	20 (1.9)	21 (1.4)
기 타 형 법 범		514 (1.7)	439 (1.5)	30 (2.9)	18 (1.2)
특별법범	폭 력 행 위	12,209(39.7)	11,951(42.1)	565(54.3)	584(38.0)
	도 로 교 통 범	905 (2.9)	2,916(10.3)	16 (1.6)	269(17.5)
	교 통 사 고 특 례 범	1,260 (4.1)	1,673 (5.9)	46 (4.4)	130 (8.5)
	기 타 특 별 법 범	4,443(14.4)	2,724 (9.6)	45 (4.3)	106 (6.9)

주: 기타 재산범죄: 장물, 사기, 횡령, 배임, 손괴
 기타 강력범죄: 살인, 방화, 상해, 협박, 공갈 등
 기타 형법범죄: 위조범죄, 공무원 범죄, 풍속범죄, 과실 범죄 등
 기타 특별법범: 근로기준법, 병역법, 주민등록법, 부정수표단속법 등

자료: 대검찰청(1987,1991)

2. 낙인과 친구 관계 유형

낙인 상황의 단계별로 친구 관계의 특성을 군집성 차원에서 살펴 보면(표 3)과 같다.

〈표 3〉 낙인 상황의 단계별 군집성 정도

(1) 평균 비교

낙인 상황	군 집 성 정 도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범위(최저-최고)
비 낙인	214	2.63	.82	.06	0-4
비공식 낙인	28	2.50	.75	.14	0-4
준공식 낙인	97	2.43	1.10	.11	0-4
공식 낙인	165	2.61	1.10	.09	0-4
전 체	504	2.58	.97	.04	0-4

(2) 분산 분석 요약표

변산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	유의도
집단간	3	2.9373	.9791	1.0371	.3758
집단내	500	472.0448	.9441		
전 체	503	474.9821			

〈표 4〉 낙인 상황의 단계별 친구 관계 유형

사례수(%)

친구관계 유 형	낙 인 상 황				계
	비낙인	비공식 낙인	준공식 낙인	공식낙인	
외톨이	2 (.9)	1 (3.4)	10 (9.5)	9 (5.2)	22 (4.1)
단짝	15 (6.6)		4 (3.8)	16 (9.3)	35 (6.5)
끼리끼리	69 (30.1)	12 (41.4)	29 (27.6)	42 (24.4)	152 (28.4)
패	102 (44.5)	14 (48.3)	42 (40.0)	62 (36.0)	220 (41.1)
패거리	26 (11.4)	1 (3.4)	12 (11.4)	36 (20.9)	75 (14.0)
기타	15 (6.6)	1 (3.4)	8 (7.6)	7 (4.1)	31 (5.8)
계	229 (100)	29 (100)	105 (100)	172 (100)	535 (100)

* 카이사승=35.86 자유도=15 P<.005 탈락사례수=15

〈표 3〉에서 군집성 정도는 친구 관계 유형을 단순히 성원의 수를 기준으로 하여 척도화한 점수인데, 여기서 ‘외톨이’는 0점, ‘단짝’은 1 점, ‘끼리끼리’는 2점, ‘패’는 3점, ‘패거리’는 4점으로 계산했다. 낙인 상황의 단계별로 군집성 점수의 평균을 비교해본 결과, 각 낙인 상황에 있어서의 평균의 차이는 통계적으로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의하면, 낙인 상황은 청소년들의 집단화 정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이 된다. 그렇다면 친구들의 성원 수에 있어서 낙인된 청소년들은 낙인되지 않는 상태의 청소년 들과 별로 다르지 않은 친구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얘기가 되는데 서술적 차원에서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친구 관계 유형을 살펴보면〈표 4〉와 같다.

2명과 함께 자신의 친구를 때린 학생들을 상대로 집단 폭행하게 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 김태수는 어째서 한번 사법 처리를 받고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았는데 또다시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친구가 다른 학생한테 맞고 오니까 보복 심리로 상대방 학생에 대해 폭행한 거 같다. 가까운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맞고 그러니까 의리랄까 어쩔수없이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김태수)

김태수의 경우에서 보듯이, 낙인된 청소년들은 낙인으로 인한 대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내 외톨이 신세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옛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준공식, 공식 낙인 단계에서 나타나는 ‘외톨이’와 ‘단짝’ 유형의 친구 관계는 낙인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점차 ‘끼리끼리’, ‘패’ 또는 ‘패거리’ 유형의 친구 관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겠다.

한편 공식 낙인 단계에서 ‘패거리’ 유형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공식 낙인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낙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보다 빠르고 손쉽게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받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이미 여러명의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정한 규칙도 존재하는 집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이러한 점은 친구들과 함께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보호 관찰 처분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재비행을 저질러 구속된 최진오의 경우에 잘 드러나고 있다.

최진오는 여러 차례 가출한 경험이 있으며 장기간 무단 결석하여 중학교 1학년 때 퇴학당한 상태에서 절도 혐의로 보호 관찰 처분을 받게 된 자이다. 최진오는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동안 주로 건축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면서 집에서 지냈고 부모의 권유

렇게 낙인된 청소년은 낙인되기 전에 같이 어울려지내던 친구들로부터 거부당함으로써 이전의 친구들과 멀어지게 될 가능성은 얼마든지 있다.

이번 조사에서 보호 소년 가운데 한 사람은 자신의 친구 관계를 잘 나타내 주는 표현을 선택하라는 문항에 대해 다음과 같이 적고 있다.

“이번 사건이 없었을 때는 친구들 서너 명과 같이 잘 놀러 다녔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생긴 이후부터 친구들과 아주 멀어진 것 같다.” (질문지 응답 내용)

그런데 낙인받는 사건을 계기로 하여 친구들과 멀어지게 되는 경험은 일시적인 현상일 수 있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옛 친구와 다시 가까워지거나 아니면 새로운 친구들과 사귀게 되는 과정을 거칠 것이라는 점을 김태수와 의 면담 내용을 통해 짐작할 수 있다.

김태수는 고등학교 2학년 말경에 폭행 사건에 연루되어 검찰에서 기소 유예 처분을 받고 학교에서는 유기 정학을 받게 되었다.⁴⁾ 그 때 김태수는 가깝게 지내던 친구들이 자신을 멀리하는 기분을 느꼈다고 한다.

“가까운 친구들은 집에 빨리 들어가라고 하고 걸으로는 잘 대해주었으나, 나는 그것이 (자신이) 마음에 없어서 그러는 줄 알았고, 친구들과도 조금 멀어지는 기분이었다.” (김태수)

그 사건 이후, 김태수는 “기가 죽어서 학교에서 그냥 공부만 했다.”고 한다. 그러다가 3학년 초쯤에 중학교 때부터 사귀던 친한 친구가 다른 학생들한테 폭행을 당하고 오자 친구를 위해서 다른 친구

4) 이 글에 나오는 조사 대상자의 이름은 모두 가명이다.

2명과 함께 자신의 친구를 때린 학생들을 상대로 집단 폭행하게 되는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다. 김태수는 어째서 한번 사법 처리를 받고 학교에서도 징계를 받았는데 또다시 사건을 일으키게 되었느냐는 연구자의 질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하고 있다.

“친구가 다른 학생한테 맞고 오니까 보복 심리로 상대방 학생에 대해 폭행한 거 같다. 가까운 친구가 다른 사람한테 맞고 그러니까 의리랄까 어쩔수없이 일을 저지르게 되었다.” (김태수)

김태수의 경우에서 보듯이, 낙인된 청소년들은 낙인으로 인한 대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내내 외톨이 신세로 남아있지는 않을 것이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옛 친구와의 관계를 회복한다거나 아니면 자신의 처지를 이해해 주는 친구들과 새로운 관계에 들어갈 수도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본다면 준공식, 공식 낙인 단계에서 나타나는 ‘외톨이’와 ‘단짝’ 유형의 친구 관계는 낙인에 따라 발생하는 일시적인 현상이고 점차 ‘끼리끼리’, ‘패’ 또는 ‘패거리’ 유형의 친구 관계로 들어갈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짐작할 수 있겠다.

한편 공식 낙인 단계에서 ‘패거리’ 유형이 다소 높게 나타난다는 사실은 공식 낙인된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낙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어려움에 직면하여 보다 빠르고 손쉽게 자신의 정체감을 확인받고 자신의 존재를 과시하기 위해 이미 여러명의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정한 규칙도 존재하는 집단에 참여할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점을 강하게 시사해 준다. 이러한 점은 친구들과 함께 절도 사건에 연루되어 보호 관찰 처분을 받고 있던 중 또다시 재비행을 저질러 구속된 최진오의 경우에 잘 드러나고 있다.

최진오는 여러 차례 가출한 경험이 있으며 장기간 무단 결석하여 중학교 1학년 때 퇴학당한 상태에서 절도 혐의로 보호 관찰 처분을 받게 된 자이다. 최진오는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동안 주로 건축업을 하고 있는 아버지의 일을 도와주면서 집에서 지냈고 부모의 권유

로 교회에 다니면서 새롭게 교회 친구들을 사귀기도 하였다. 그러나 최진오는 이전에 “친구들과 어울려 놀고 여기저기 돌아다닌 경험도 있고 해서 집에 있으면 답답”했고 책을 보기도 싫었으며 자신이 생각하기에도 “어떻게 지내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최진오는 가끔씩 시내 거리에서 지금은 이름난 불량 씨클에 가입해 있는 옛 친구들을 만나보기도 했다. 그러던 어느날 대개 집에서 지내왔던 최진오는 오랜만에 옛 친구와 같이 시내에 나갔다가 친구와 공동으로 남의 오토바이를 훔치다 경찰에 발각되어 구속되기에 이르렀다.

최진오의 경우는 학교도 퇴학당한 상태이고 더구나 보호 관찰을 받고 있는 어려운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따분한 현 상황을 벗어나 보다 흥미롭고 재미있는 일을 하고픈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그리고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픈 심정에서 이미 불량 씨클의 성원이 되어 있는 옛 친구들과 접촉하게 되고 결국은 재비행으로까지 이어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공식 낙인된 청소년들이 참여하는 집단의 성격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인지는 좀더 따져보아야 할 문제이다.

3. 낙인과 집단 결속력

낙인 상황별로 집단 결속력은 어떠한 것인지는〈표 5〉에 제시되어 있다.

〈표 5〉에서 보면, 낙인 상황이 집단 결속력에 미치는 영향은 90% 유의도 수준에서는 통계적으로 의미가 있으나 95% 유의도 수준에서는 의미없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적어도 90% 유의도 수준에서는 낙인 상황이 집단 결속력에 의미있는 차이를 일으키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런데 그 차이의 구체적 내용을 살펴보면, 집단 결속력은 비낙인과 공식 낙인 단계간에만 차이가 있으며 또 그 차이는 근소하기는 하지만 비낙인에 비해 공식 낙인

(표 5) 낙인 상황의 단계별 집단 결속력

(1) 평균 비교

낙인 상황	집 단 결 속 력				
	사례수	평균	표준편차	표준오차	범위(최저-최고)
비 낙인	229	11.52	1.42	.09	8-16
비공식 낙인	28	11.54	1.64	.31	7-14
준공식 낙인	93	11.31	1.81	.19	6-15
공식 낙인	163	11.10	1.91	.15	4-16
전 체	511	11.35	1.68	.07	4-16

(2) 분산 분석 요약표

변산원	자유도	자승합	평균자승	F	유의도
집단간	3	17.6440	5.8813	2.0998	.0993
집단내	507	1420.0468	2.8009		
전 체	510	1437.6908			

(3) Scheffe 검증 결과

평균	낙인상황	낙인 상황			
		공식낙인	준공식낙인	비낙인	비공식 낙인
11.10	공식 낙인				
11.31	준공식 낙인				
11.52	비 낙인	*			
11.54	비공식 낙인				

(*) 표시는 낙인 상황간 차이가 유의적임을 나타냄

범위값(range value)=3

단계의 집단 결속력이 더 낮은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분석 내용은 집단 결속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다른 요인들을 고려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결과이기 때문에 낙인이 집단 결속력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하기에는 아직 이른 단계이다.

〈표 6〉 집단 결속력에 대한 낙인 및 나이의 분산 분석 요약표

변 산 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도
주 호 과	25.901	6	4.317	1.556	.158
낙 인 상 황	5.099	3	1.700	1.700	.607
나 이	2.410	3	.803	.290	.833
상호작용효과 (낙인×나이)	30.647	7	4.378	1.579	.139
전 체	59.259	13	4.558	1.644	.070

* 회귀접근법(regression approach)을 적용함 탈락사례수=39

〈표 7〉 집단 결속력에 대한 낙인 및 계층·계급적 지위의 분산 분석 요약표

변 산 원	자승합	자유도	평균자승	F	유의도
주 호 과	23.265	9	2.585	1.033	.412
낙 인 상 황	11.332	3	3.777	1.510	.211
교 육 수 준	2.777	2	1.389	.555	.574
계 급 지 위	.937	2	.469	.187	.829
생 활 형 편	6.178	2	3.089	1.033	.412
전 체	23.265	9	2.585	1.033	.412

* 회귀접근법(regression approach)을 적용함

탈락사례수=79

〈표 6〉, 〈표 7〉에 차례로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나이 및 계층·계급적 요인을 통제했을 경우에 낙인 상황은 집단 결속력에 어떠한 영향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통제 변수인 나이, 보호자의 교육 수준, 가정 생활 형편, 보호자의 계급 지위 역시도 집단 결속력에 의미있는 차이를 일으키지 못하는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기초해 볼 때, 앞의 분석에서 공식 낙인 단계의 집단 결속력이 비낙인보다 낮다는 점은 거의 무시해도 좋을 정도의 차이로 볼 수 있고, 그렇다면 집단 결속력은 낙인된 경우와 그렇지 않은 경우 사이에 그리고 각 낙인 상황간에 별다른 차이

가 없다고 결론지을 수 있다.

심층 면접 및 질적 자료를 살펴보다도 공식 낙인 단계의 청소년들이 친구 관계에 있어 특별히 변화를 겪고 있다는 단서를 발견하기 어렵기는 양적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이다.

다음에 제시된 인용문들은 보호 관찰 소년들과의 심층 면접을 통해 얻어진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이후의 친구 관계의 변화에 대한 내용이다.

“아는 형, 친구 너댓 명과 같이 하루만 집에 안들어 갈려고 했는데… (이렇게 가출을 하여) 어떤 분식점에 들어갔는데 주인이 없었다. 아는 형이 주인이 오니를 보라 하고, 주인이 안오니까 지갑을 꺼내 가져오라고 해서, 아는 형이 5만원씩 나누어 주고 수표는 나중에 돈으로 바꾸어 준다고 했다 …… 편의점에 들어가서 나오는데 형들은 큰 도로를 건너가고, 도로 가운데로 건너가는데 경찰에게 잡혔다. 친구들은 잡히고 형들은 도망갔다. 친구는 육지에서 온 신문 배달하는 아이하고 국민학교 동창이다 …… (그 때) 사건을 같이 저질렀던 친구들은 다른 지역으로 가서 만나지 못한다. 지금은 주로 동네 친구들과 논다.” (부태연)

“그 때 친구는(폭행 사건을 같이 저지른 친구) 그렇게 친하지도 않고 학교 친구 소개로 알게 되었는데 그 친구는 학교에 안다니는 친구였다. 지금은 가까운 친구가 동네 친구들인데 잘 지낸다.” (정수만)

“자퇴해서 운동(유도)을 하게 되었는데 거기서 불량 씨클 친구들을 만나게 되었고, 나가 키가 크고 몸집도 좋으니까 여러번 싸움을 하는 데 끼게 되고, 그러다가 이번 일이(폭행 사건으로 보호 관찰 처분을 받은 일) 일어나게 됩니다. 그 친구들은(불량 씨클 친구들) 사건 후 우연히 만나게 되었는데 얘기해 봐야 그렇고, 잘 안만난다. (그 친구들은) 동네 친구는 아니고, 학교에서 사귄 친구도 아니고 그렇고 그런 친구들이다.” (박주남)

“친구들은 국민학교 동창이 고등학교에 와서 친해진 친구와 고등학교 때

사건 친구들, 친구들은 모두 나보다 착합니다.” (강철중)

다음은 위에 소개한 정수만과 박주남이 ‘나의 친구’라는 제목 하에 쓴 회상록 내용이다.

“나의 친구는 좀 많은 편이다. 그 중에서도 같은 동네에서 지금까지 쪽 자라오면서 학교 생활을 같이 한 불알 친구가 제일이다. 나의 친구의 성격은 대부분 순진하고 화끈화끈한 성격을 지녔다. 지금 친구 중에 대학 다니는 친구도 있고 재수하는 친구도 있고 자기 나름대로 갈 길을 찾아 일을 다니는 친구도 있다. 친구들은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는 무슨 일이나고 하며 나쁜 일이면 충고해 주고 괴롭거나 슬플 때 위로해줘서 참 좋다.” (정수만의 회상록)

“친구는 많다. 그러나 마음을 털어놓고 얘기할 친구는 단 한 명. 이름: 임학수, 차분하다. 잘생겼다. 내가 보기엔 친구들한테서 평이 좋지 않다. 그런데도 자기 맡은 일에는 최선을 다한다. 학수에게 장점은 모든 사람들이 나를 미워해도 언젠가는 나의 마음을 알고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난 학수의 그런 성격에 반했다. 단점은 일을 하는 데 진취적이지 못하다. 동기:동네 친구라서 어렸을 때부터 알았습니다.” (박주남의 회상록)

지금까지 제시된 심층 면접과 회상록의 내용을 검토해 보면, 공식 낙인된 청소년들은 특별히 같은 처지에 있는 또래들과 결속력 강한 집단을 형성하는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하여 일상 생활에서 완전히 친구들과 단절된 채로 살아가는 것도 아닌 듯하다. 그리고 비행을 일으킬 당시의 친구들 역시 감정적으로 유대감이 공고한 친구들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상황상황에 따라서 일시적으로 알게 된 또래 또는 이전에 사귀어 오던 또래들 중의 몇몇으로 보는 것이 적합할 듯하다.

4. 조사 결과의 요약 및 논의

이번 조사 결과를 분석해 본 결과, 낙인 상황은 집단화 경향 및 집

단 결속력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낙인 정도가 높아진다고 하여 특별히 집단 결속력이 강해지는 증거도 없거니와 집단화 추세가 눈에 띄게 진척된다는 증거도 찾기 어렵다. 이러한 사실을 통해 낙인되었던 그렇지 않건간에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대체로 비슷한 친구 관계 유형이나 또래 집단 결속력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추측해 볼 수 있다. 이번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조사 대상 청소년들의 대부분은 대체로 낙인 상황과는 구분없이 3명 이상의 또래 집단에 참여하고 있으며, 집단 결속력은 16점 만점에 평균 11.35점 정도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러나 낙인 상황의 단계별 친구 관계 유형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결과에 의하면, 준공식, 공식 낙인 단계에 있는 청소년들은 초기에는 낙인으로 인한 대인 관계의 어려움으로 인해 친구 관계가 소원해짐으로써 '외톨이' 신세에 처해 있다가 점차 '끼리끼리', '패' 유형의 친구 관계로 되돌아가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남아 있다. 더 나아가 공식 낙인된 청소년들 가운데 일부분은 낙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여러가지 어려운 환경에 직면하여 보다 손쉽게 자신을 인정해 주는 동료들과 접촉하고 자신의 존재를 내보이기 위해서 이미 여러 성원으로 구성되어 있는 '패거리' 유형의 친구 집단에 참여할 가능성마저 간파할 수 있다.

낙인과 친구 관계의 변화에 관한 발견된 사실들을 통해 볼 때, 제주 지역 비행 청소년들이 형성하는 친구 관계의 성격을 어떻게 특징 지을 수 있을 것인가?

먼저 코헨이 제시한 비행 집단의 특성처럼 일정하게 정해진 집단 구성원들로 조직된 지속성 있는 동질적 집단은 아닌 듯싶다. 이점은 문제아 또는 범죄자로 낙인된 청소년들의 친구 관계가 하나의 특징적인 형태를 띠고 있는 것이 아니라 상황에 따라서 다양한 친구 관계 유형을 보이고 있다는 조사 결과를 보면 분명해진다.

그렇다면 제주 지역 청소년들은 마차가 제시하듯이 친구들과의 교섭은 비행자들에게 심리적으로 자유로운 공간을 제시해 주는 구실만

하는 것이고 비행을 감행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행위자 단독의 결단에 의해 이루어지는 느슨한 형태의 비행 문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일까? 이번에 발견된 사실들을 꼼꼼히 되새겨 보면 마차의 이론만으로는 충분하게 해명이 안되는 부분이 남아 있다. 공식 낙인 단계에서 ‘패거리’ 유형의 친구 관계가 상대적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는 사실, 그리고 공식 낙인된 이후에도 어쨌거나 여러 형태의 친구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 더욱이 친구와의 ‘의리’를 생각해서 몇몇 동료들과 함께 재비행을 한다거나 또는 불량 씨클에 가입해 있는 옛 친구와 어울려 재비행을 한다는 사례들. 이러한 사실들은 마차의 주장처럼 낙인에 직면한 청소년들이 행위자 주체의 결정만으로 자신의 정체감을 조정해 나가는 것은 아니고 거기에는 집단 영향력이 일정 정도 개입되고 있을 것이라는 점을 시사해 준다. 이번 조사의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 비행은 집단 현상이라는 주제는 타당한 것으로 보인다.⁵⁾

낙인된 청소년들은 코헨의 비행 집단처럼 하나의 잘 조직되어 있고 응집력이 강한 동질적 집단을 형성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그렇다고 완전히 집단 생활로부터 벗어나 있는 것도 아니다. 따라서 낙인된 청소년들은 사회에서 뚜렷이 하나의 집단으로 구분할 수 있는 형태의 집단에 속해서 생활해 나가는 것은 아니지만 상황상황마다 자신의 편의에 따라서 친구 관계를 달리하는 유사 집단 속에서 생활해 나가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본다면 제주 지역 비행 청소년들이 형성하는 친구 관계의 성격은 야블론스키가 정의한 유사 집단의 특성과 부합되는 측면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제주 지역 비행 청소년들은 어떤 때는 진실로 자신을 위로해 주고 충고해 주는 오래된 고향 친구를 찾아가 하면 또 어떤 때는 자신의 답답하고 따분한 생활을 벗어나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고 흥미로운

5) 비행 설명에 있어 집단 영향력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글로는 다음을 참조할 것. Erickson & Jensen(1982); Giordano, Cernkovich & Pugh(1986).

일을 찾기 위해 자신이 보기에도 불량한 친구와도 어울리는 매우 유동적인 친구 관계를 나타내는 것으로 파악해 볼 수 있다.

그런데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결속력 강한 비행 집단이 많이 형성되고 있음을 보여 주는 연구 결과(김준호·노성호·곽대경, 1992)를 고려해 본다면, 제주 지역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한 이번 조사 결과는 지역 사회가 처한 사회적 상황에 따라 비행 문화의 성격이 차이를 보일 수도 있을 것이라는 시사점을 던져준다고 생각한다. 즉 삶의 모든 영역과 과정에서 치열한 경쟁과 그로 인한 심한 좌절을 겪을 수밖에 없는 대도시 지역에서는 사회 규범과 생활로부터 크게 벗어난 채로 형성된 비밀 결사 형태의 비행 집단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는데 비해, 경쟁 의식을 덜 느끼고 삶의 과정 역시 느슨하게 진행되는 사회 분위기에서는 정상적 사회 관계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의 비행 문화가 존재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해 본다.

V. 맺음말

공식 통계에 의한 청소년 범죄 양상을 살펴보면, 제주 지역은 대도시 지역을 제외한 우리 나라 중·소도시들 가운데 비교적 범죄 발생이 높은 곳에 속하며, 범죄 유형 면에 있어서는 폭력 행위와 절도가 주종을 이루고 있다.

낙인과 친구 관계의 변화에 관한 조사 결과에 비추어 보건대, 제주 지역 비행 청소년들은 상황상황에 따라 여러 부류의 동료들과 접촉하면서 동료들과 더불어 자신들의 욕구를 해결하고 적응을 모색하는 유사 집단을 형성하고 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생각한다.

이번에 제주 지역에서 발견된 사실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 지역에서는 결속력 강한 비행 집단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조사 보고와 차이를 보이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조사상에 큰 결함이 없는 한 지역 사회의 특성에 따라 비행 문화의 성격이 달라질 수 있음을 시

사해 준다. 즉 삶의 과정에서 경쟁이 치열한 사회적 상황에서는 정상적 사회 관계로부터 크게 떨어진 조직화된 비행 집단이 형성되는데 비해, 삶의 과정이 느슨하고 경쟁 의식이 그다지 강열하지는 않는 사회적 상황에서는 정상적 사회 관계로부터 크게 벗어나지 않는 형태의 비행 문화가 생겨날 가능성이 클 것으로 생각한다.

그러나 지역 사회에 따른 비행 문화의 차이와 그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캐보기 위해서는 비슷한 형태의 반복적인 조사 연구를 필요로 한다.

참 고 문 헌

김준호·노성호·곽대경

1992 『한국의 청소년 비행집단에 관한 연구』, 한국형사정책연구원.

대검찰청

1987, 1991 『범죄 분석』.

전병재

1991 『청소년 친구집단과 비행간의 상관성 연구: 낙인 과정 설명을 중심으로』, 한국형사정책연구원.

홍두승

1983 “한국사회계층연구를 위한 예비적 고찰”, 서울대학교 사회학 연구회(편), 『한국사회의 전통과 변화』, 범문사.

1988 “직업과 계급: 집락분석을 통한 계급 분류”, 『한국사회학』, 22(겨울).

홍두승·서관모

1985 “한국사회계층의 실태와 개념상의 재구성 문제”, 김진균 외, 『한국사회의 계급 연구 1』, 한울.

Becker, Howard S.

1973(1963) *Outsiders: Studies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New York: The Free Press.

Braithwaite, John

1989 *Crime, Shame and Reintegration*,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Cohen, Albert K.

1955 *Delinquent Boys: The Culture of the Gang*, New York: The Free Press.

Erickson, Maynard L., and Gary F. Jensen

1982 “Delinquency is still Group Behavior!: Toward Revitaliz-

- ing the Group Premise in the Sociology of Deviance,” in *Juvenile Delinquency*, edited by Rose Giallombardo, New York: John Willy and Sons, Inc.
- Giordano, Peggy C., Stephen A. Cernkovich and M. D. Pugh
1986 “Friendships and Delinquency,” *American Journal of Sociology*, V.91(5).
- Herbert, David T.
1989 “Crime and Place: An Introduction,” in *The Geography of Crime*, edited by David J. Evans and T. Herbert, London: Routledge.
- Horrocks, John
1951 *The Psychology of Adolescence*, Boston: Houghton Mifflin Co.
- Matza, David
1964 *Delinquency and Drift*, New York: John Wiley and Sons, Inc.
1969 *Becoming Deviant*, Englewood Cliffs, New Jersey: Prentice Hall Inc.
- Reiss, Albert J. Jr.
1986 “Why are Communities Important in Understanding Crime?” in *Communities and Crime*, edited by Albert J. Reiss, Jr., and Michael Tonry,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 Sykes Gresham M., and David Matza
1975 “Techniques of Neutralization,” in *Theories of Deviance*, edited by Stuart H. Traub and Craig B. Little, Itasca, Illinois: F. E. Publishers, Inc.
- Yablonski, Lewis
1959 “Delinquent Gang as a Near-Group,” *Social Problems*, V. 7(2).

Labeling and Juvenile's Friendships in Cheju Island

Kang, Sei Hyon
Cheju National University

This paper suggests that the friendship styles in the labeling processes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communities.

The results show that delinquent's friendships in Cheju Island approximate to a near-group, with the characteristics of limited cohesion, shifting membership, and impermanence.